

낙태와 미혼모



차희제 토마스 M.D.
산부인과 전문의

고민 끝에 병원 문을 닫고 지금의 상담 주치의 생활로 접어든 지가 벌써 4년 하고도 8개월이 지났다. 처음에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밤을 낮처럼 치열하게 살아왔던 분만 의사의 피곤한 삶에 비하면 분에 넘치게 편한 자리였고, 의사로서 산부인과 외에 할 일을 남겨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그동안 생명 운동을 한답시고 '낙태 반대' 또는 '분만 전문' 하면서 좌충우돌 나대다가 결국 병원을 말아먹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뻔한 사연을 자랑스레 많이도 떠들고 다녔던 것 같다. 그런 일이 의욕과 마음만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었건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주위 분들이 볼 때 이런 생각을 지닌 이들이 많긴 했지만, 현실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실천한 이는 거의 없다 보니 그런 쪽으로 희소가치가 있어서인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강의다 심포지움이다 해서 생명 관련 일을 틈틈이 쫓아다녔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5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젠 영영 환자-산모와 멀어져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나 일선 현장에서 산모-환자들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호흡하리라 굳게 마음먹고 있었기에 그렇지 못하는 상실감은 더욱 커져 갔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한 삶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약삭빠른 이중성을 발견하곤 스스로 당황스러워 했다.

이미 조금 늦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마음가짐이 예전만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힘들지만 생동감 넘치는 의료 일선으로, 치절한 삶과 죽음의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소명감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약 940명의
멀쩡한 태아가
매일같이
낙태 수술로
죽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어 참석한 적이 있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지난 30년간 악법으로 무수히 지적되어 온 모자보건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전체 낙태 수술 건수를 줄이고 여성들을 낙태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구제해 보자는 것이었다. 각계에서 나온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리를 메운 수많은 참관인들의 모습 또한 진지했다.

참고로, 몇 년 전 모 대학교 산부인과팀이 우리나라의 1년간 임신 중절 수술 건수를 조사하여 342,233건이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전까지 일관되게 알려져 왔던 120만 건이나 150만 건과는 상당한 수적 차이를 보여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설령 이 수치가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약 940명의 멀쩡한 태아가 매일같이 낙태 수술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니 이 얼마나 끔찍스런 일인가?

모자보건법이 반드시 낙태수술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망국적 저 출산 현상으로 고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모 대학교 연구진이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훑어보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점은, 이러한 나름의 합리적인 목적과 취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주 애매하고 포괄적인 조항들을 신설하여 오히려 낙태 수술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함께 출연했던 공청회 당시 발표자들과 열띤 토론 공방을 벌이면서 법 개정이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토론 과정에서 사회자가 한 질문을 던졌다. 질문 내용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시행한 여성과 아기를 받아들여 끝까지 키워서 낳은 여성 간의 이후 삶의 질과 인생의 만족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성 단체 대표로 나온 분이 낙태를 행한 미혼모 그룹이 더 많은 결실을 이루며 행복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 아기를 키워서 낳은 미혼모 그룹은 대부분 실패와 좌절, 불행과 회한의 삶을 살아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고 마치 낙태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로 들릴 소지가 많았다. 나는 즉각 반박했다.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없이 생명론자(Pro-life)와 선택론자(Pro-choice) 간에 끝없는 공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기의 많은 연구자들이 낙태와 정신적인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주장하였지만, 이와는 반대로 최근의 더 많은 연구자들은 낙태 수술이 산모의 우울감, 슬픔, 자살 시도, 죄책감, 불안 초조감, 상실감, 분노 등의 정신적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이 어린 사춘기 여자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무분별하게 낙태 수술을 받고, 그 이후 발생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게 되는 엄연한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논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없는 일을 있다고 말해도 문제가 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있는 일을 없다고 우겨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식으로 온 동네 떠돌고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다. 문제가 있는 비율의 많고 적음은 차후 문제이다.

나의 지난 산부인과 경험으로 볼 때에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들과의 진솔한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결론은, 그들에게 분명 이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존재하며 또한 당사자들은 그 죄책감과 후회로, 잃은 아기에 대한 연민으로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는 사실이다. 이렇듯이 낙태 수술 후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심리적 후유증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아기를 키우고 낳은 아이들은 입양 보냄으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은 느낄지언정 언젠간 그 아이와 만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미혼모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배속 태아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중요하다.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히 교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사회 정의 실종과 가치관 전도 현상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삶의 모습보다는 한탕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개인-이기주의 또는 편의주의의 득세로 인해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가정이 분열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유전무죄-무전유죄 사회, 나아가 이 나라에서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사라져 버린 세상이 되었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못된 짓거리들이 이제는 버젓이 대중 앞에서 자행되는 세상이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유추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생명이나 선택이나”를 놓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해답은 이미 우리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이 아기를 낳아서 어찌란 말인가?’ ‘기형아를 낳아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나?’ ‘강간으로 들어선 아기를 어떻게 낳는가?’ ‘이미 애가 둘인데 또 낳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야..’라며 도리질치는 한 인간으로서, 한 의사로서의 나 자신을 본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결정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만을 보지 말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숨은 뜻을 올바르게 알아차려야 한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려면 반드시 고통과 시련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억울하고 미친 짓처럼 느껴져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살다보면 차츰 차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득해져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또한 어느 누구라도 살아 있는 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낙태 수술 후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심리적
후유증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